

목 차



보험산업 동향	10
보험료도 AI로 산출한다...코리안리, 국내 최초 '요율산정 AI' 도입	10
DB손보, '보험 보상' 전 과정에 AI 입힌다...보상체계 자동화	11
"AI 실수도 보상"...일레븐랩스, 세계 첫 AI 에이전트 보험 도입	12
일본생명, 오픈AI에 151억 원 손배소..."챗GPT가 무면허 법률 조언"	13
영국 보험사 Mosaic, AI 개발자를 위한 성능 보장 보험 출시	14
USD.AI와 Barker, Munich Re가 보증하는 GPU 대출 보험 출시	15
Guidewire, 건물 위험 정보를 보험 업무 전 과정에 통합	16

보험료도 AI로 산출한다...코리안리, 국내 최초 '요율산정 AI' 도입

- 국내 최대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요율산정 AI 어시스턴트를 본격 도입할 예정
 -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코리안리가 신청한 기업성 보험 요율산정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 * 현행 규제에 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해 일정 기간 시장 테스트를 지원 하는 제도
 - 코리안리의 요율산정 AI 어시스턴트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머지 않은 미래에 보험료 산출을 AI가 주도적으로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됨
- 코리안리는 지난해 7월부터 별도 조직을 만들어 AI 어시스턴트 개발을 추진해 왔음
 - 코리안리는 현재 아마존이 제공하는 AWS Bedrock, GCP(구글클라우드)의 GCP Vertex AI를 활용해 기업성 보험 요율산정 AI 어시스턴트를 개발 중이며,
 - 향후에는 '보험사로부터 요율구득문서*'를 접수해 보험요율이 산출되는 전 과정'에서 AI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 원수보험사가 재보험사에 특정 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을 요청하기 위해 보내는 서류
- 앞으로 코리안리에 기업성 보험 요율을 요청하는 보험사들은 AI가 산정한 보험요율을 받게 될 전망
 - 이는 곧 보험사를 통해 기업성 보험에 가입하는 일반 보험가입자들도 AI가 산정하는 보험요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
- 코리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AI가 산정한 보험요율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
 - 코리안리는 이후 재물보험, 특종보험 등 기업성보험 전반으로 AI가 산정한 보험요율이 반영되는 상품군을 확대할 방침
- 전문가들은 금융업권 중 보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보고 있음
 - 그 이유는 확률과 수학을 바탕으로 미래 손해·위험을 예측하는 보험 업무에 AI가 활용될 경우 오류를 줄이고 보험료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
- 코리안리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에 테스트베드 형태로 AI 어시스턴트를 적용하고, 다른 상품 종목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출처: 전자신문(2026.03.22.) 보험료도 AI로 산출한다...코리안리, 국내 최초 '요율산정 AI' 도입

DB손보, '보험 보상' 전 과정에 AI 입힌다…보상체계 자동화

- DB손해보험은 보험 보상업무 자동화의 일환으로 고객 참여형 보상 시스템 'AI 에이전트'를 정식 오픈하였음('26.2.22.)
 - 'AI 에이전트'는 음성언어를 문자로 변환해 주는 STT(Speech-To-Text), 문자를 음성언어로 변환하는 TTS(Text-To-Speech)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삼성 SDS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됨
 - DB손보 고객들은 'AI 에이전트' 개발로 대기 시간 없이 필요한 보상 절차 안내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응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
 - 해당 서비스는 단순 업무 효율 개선이나 반복적인 보상 안내 자동화 수준을 넘어, 고객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투명·신속한 보상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
- DB손보는 자동차 사고 접수 시 AI를 활용하여 30분 이내에 자동으로 초기 안내 및 사고 관련 기초 정보를 확보하고, 해당 정보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원스톱 프로세스를 지원할 예정
 - 이 과정에서 고객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정비공장 정보 입력, 치료 내용 및 병원 정보 입력, 미치료 또는 차량 미수리 건에 대한 안내까지 AI와의 대화를 통해 직접 진행하게 됨
 - 이는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방식이 아니라 보상 전 과정에 고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상담 방식과 차별화됨
- DB손보는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및 담보를 시작으로 장기 보상까지 AI 적용을 확대할 계획
 - 기존에도 보험금 소액 지급 건 및 단순 담보엔 보상 자동화가 적용됐지만, DB손보는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전 상품 보상 절차에 AI를 반영할 예정
 - 이는 그간 수작업에 의존해 진행됐던 보상 과정을 AI 기반으로 통합하는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DB손보는 AI 기반 보상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고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DB손보 관계자는 “AI 기술은 단순 보조 수단이 아닌 고객 경험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이라며,
 - “앞으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보상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

출처: 전자신문(2026.03.04.) DB손보, '보험 보상' 전과정에 AI 입힌다…보상체계 자동화

"AI 실수도 보상"...일레븐랩스, 세계 첫 AI 에이전트 보험 도입

- 영국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기술 기업 일레븐랩스(ElevenLabs)는 미국의 AI 리스크 평가 전문 기업인 'AIUC'와 협력해 AI 에이전트 전용 종합 보험 상품을 세계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힘('26.3.18.)
 - 이로 인해 앞으로는 일레븐랩스의 대화형 AI 에이전트 '일레븐에이전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
 - 해당 보험은 한국에서 '일레븐에이전트'를 도입한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
- 많은 기업이 AI 에이전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이 파일럿(시범 운영) 단계에서 머물러 있음
 - AI 환각이나 AI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따른 기업의 법적·경제적 책임이 AI 에이전트 확산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
- 일레븐랩스는 AI 에이전트 전용 종합 보험 설계를 위해 AIUC와 협력해 위험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AI를 하나의 관리 가능한 자산으로 정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음
 - 일레븐랩스는 최근 AIUC가 개발한 AIUC-1*(보안·신뢰성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하였으며,
 - * 해당 인증은 환각, 프롬프트 인젝션, 데이터 유출, 편향성 문제 등 실제 AI 운영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5,000건 이상의 적대적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과해야 부여
 -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AIUC가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전용 보험 가입하였음
- 일레븐랩스는 이번 보험 가입이 AI를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하는 도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밝힘
 - 특히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적절한 안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명확한 리스크 관리 체계 안에서 AI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전함
- 마티 스타니셰프스키 일레븐랩스 CEO는 "기업의 AI 에이전트 도입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AIUC-1 인증은 기업이 대규모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

출처: 뉴시스(2026.03.18.) "AI 실수도 보상"...일레븐랩스, 세계 첫 AI 에이전트 보험 도입

CIO 코리아(2026.03.18.) "'AI가 실수하면 보험으로 보장' 일레븐랩스, AI 에이전트 리스크 보장 체계 공개

일본생명, 오픈AI에 151억 원 손배소... "챗GPT가 무면허 법률 조언"

- 일본생명보험(닛세이)의 미국 법인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 니혼게이지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생명 미국 법인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1천 30만 달러(약 15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 챗GPT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조언을 제공해 회사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 일본생명보험 측 주장의 요지

<일본생명 로고>



자료: 일본생명 홈페이지

-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형 AI 기업을 상대로 '무면허 법률 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
 - 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일본생명과 장애보험금 수급자 간의 분쟁으로, 양측은 과거 보험금 지급 문제로 대립하다 화해에 이르렀으나 해당 수급자가 챗GPT의 조언을 받은 뒤 합의 파기를 시도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함
 - 일본생명은 이미 법원에서 각하됐음에도 이 수급자가 자사를 상대로 다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막대한 법률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설명
- 소송 금액은 실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 손실분 보상 30만 달러,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배상금 1천만 달러를 합친 금액
 - 이번 소송은 AI의 답변이 어디까지 법적 조언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개발사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 세계 정보기술(IT) 및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출처: 보험매일(2026.03.06.) 일본생명, 오픈AI에 151억 손배소... "챗GPT가 무면허 법률 조언"

영국 보험사 Mosaic, AI 개발자를 위한 성능 보장 보험 출시

- 영국 보험사 Mosaic Insurance는 Munich Re와 협력해 AI 개발자와 공급업체를 위한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보도('26.2.26.)
 - 이 상품은 Munich Re의 AI 위험 평가 도구인 aiSure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기존 보험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AI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
 - Mosaic은 Munich Re의 AI 성능 보장 보험을 일정 한도와 조건을 갖춘 상품 형태로 시장에 제공하며 활용 범위를 넓힘
 - 기존의 사이버보험이나 기술 배상책임보험은 시스템 장애, 데이터 유출, 잘못된 사용 등 운영상의 위험을 주로 다루었으나, 이번 상품은 AI 모델 자체의 성능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즉 AI가 실제로 정확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AI나 생성형 AI 모델이 오류를 내거나 잘못된 결과를 출력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대상으로 함
- 이 보험은 전 세계 AI 개발자와 공급업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AI 모델이 사전에 정해진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받을 수 있음
 - 보장 한도는 최대 1,500만 유로/달러/캐나다 달러이며 Mosaic은 상품의 인수와 판매를 담당하고, Munich Re는 AI 리스크 분석과 기술적 전문성을 통해 보험 인수를 지원함
 - 또한, AI의 성능을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조사 없이도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 Mosaic과 Munich Re는 이러한 보험을 통해 AI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AI를 도입하고 싶지만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는 기업에게 해당 보험을 제공한다면, 공급업체가 자사 기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AI 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출처: Mosaic Insurance 보도자료(2026.02.26.) Mosaic partners with Munich Re's aiSure™ to provide pioneering coverage for AI vendors

USD.AI와 Barker, Munich Re가 보증하는 GPU 대출 보험 출시

- 미국의 금융 시스템 개발 기업인 Permian Labs는 기업 리스크 이전 플랫폼인 Barker와 협력하여 GPU 담보 대출에 대한 보장 구조를 개발하였다고 보도('26.3.4.)
 - Permian Labs는 GPU와 같은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USD.AI'라는 GPU 담보 대출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 Barker는 은행 및 대출 기관을 대상으로 담보 평가를 지원하며 기업 리스크 이전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AI를 기반으로 담보의 가치를 평가
- 해당 대출 보험 상품은 Barker가 USD.AI의 대출 담보인 GPU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 미상환으로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Munich Re가 보장해주는 구조
 - 대출이 상환되지 못해 담보가 처분되는 경우 Barker가 평가한 GPU의 평가 가치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될 수 있는데, Barker는 이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번에 개발한 보험은 담보 평가 오류로 인해 Barker가 보전해야 할 손실이 Munich Re를 통해 전액 재보험으로 뒷받침되어 USD.AI 이용자들은 GPU 담보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
 - 해당 보장 구조는 USD.AI에서 발생하는 모든 GPU 대출에 적용되며 기존 대출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에만 적용될 예정
- 이러한 협력은 AI 산업의 성장으로 GPU 금융에 대한 기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USD.AI가 AI 리스크 관리와 인프라 측면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 Permian Labs 측은 시장 변동성이 큰 AI 인프라 관련 대출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밝힘

출처: Reinsurance News(2026.03.04.) USD.AI & Barker launch insured GPU loan coverage backed by Munich Re

Guidewire, 건물 위험 정보를 보험 업무 전 과정에 통합

- 영국의 인슈어테크 기업 Intelligent AI는 미국의 보험 소프트웨어 기업인 Guidewire와 협력하여 보험사가 고해상도 건물 리스크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Intelligent AI는 보험에서 사용하는 건물 위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보험사들을 위해 데이터뿐만 아니라 건물 위험 분석 및 재건축 비용 분석 솔루션도 제공
 - Guidewire는 인수, 계약 관리, 보험금 청구 등 보험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 이번 협력을 통해 보험사는 Guidewire의 플랫폼 전반에서 Intelligent AI가 제공하는 건물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Guidewire 플랫폼 내 데이터 통합은 보험사가 업무 과정에서 데이터 사용을 위해 시스템 간 이동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면서, 보험 인수, 보험금 청구 등의 단계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지원
 - Intelligent AI는 건물의 구조, 용도, 보호 수준, 노출도, 재건 비용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보험사는 전체 보험 계약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인수 단계에서는 견적, 계약 체결, 갱신 시점마다 정확한 재건 비용, 보강된 건물 정보, 위험별 지표를 제공해 인수 정확도와 가격 산정의 정밀도를 높인데, 이는 특히 인수 담당자가 불완전한 제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
 - 또한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초기 사고 접수 검증, 전손 여부 판단, 수리와 재건 판단, 손해 규모 비교 등에 활용
 - 더 나아가 포트폴리오 수준에서는 Guidewire의 DataHub와 연계되어, 재해 위험 분석, 리스크 집적 관리, 규제 보고 등에도 활용되는 등 건물 리스크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결과적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보험사가 인수부터 청구,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출처: Reinsurance News(2026.03.20.) Intelligent AI partners with Guidewire to integrate high-resolution property risk and rebuilt data